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323~347

# 스페인 국제이민의 특성과 조건: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화"(Latinoamericanización)의 현재적 의의*

임 상 래**
(Lim, Sang-Rae)

〈Abstract〉

## La inmigración latinoamericana en España

La latinoamericanización de la inmigración a España ha comenzado a partir de principios del nuevo milenio. Ahora los latinoamericanos superan a los inmigrantes de Marruecos, que han sido más numerosos. El número de inmigrantes latinoamericanos en España es de más de 1,700,000, cifra que corresponde al 34% del total de los inmigrantes.

Como es sabido, los latinoamericanos vienen a España con el fin de buscar la oportunidad de una vida mejor. La economía española ha ido bien y la condición del mercado laboral ha sido favorable a los inmigrantes de América del Sur por lo que su mayoría puede consequir el empleo y mandar el dinero a sus queridos familiares.

Por otra parte, la expansión de la comunidad latinoamericana en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2-B00018)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srlim@pufs.ac.kr

España se debe a la hispanidad que une a América con España. Como ellos comparten misma creencia y mismo idioma con los españoles, a la vista de los españoles, son considerados 'más seguros' que los inmigrantes de otra nacionalidad cuando se establecen y se integran a la sociedad española.

De este modo, la inmigración latinoamericana presente en España debe ser percibido tanto en la dimensión institucional como en el contexto histórico-cultural.

[Key Wodrs: Inmigrantes Latinoamericanos/ Inmigración Latinoamericana/ Migracion Internacional de España/ Latinoamericanización/ Hispanidad]
[주제어: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스페인 국제이민/ 라틴아메리카화/ 히스패니티/ 스페인 외국인법]

##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국제이민의 가장 큰 흐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행 이민이다. 중남미 이민자 4명중 3명의 목적지는 미국이다. 2007년 통계에 따라면 현재 미국에는 총 4,500 만 명의 히스패닉 인구가 있다. 이중 2,700 만 명은 미국 태생이고 1,800 만 명은 라틴아메리카 이민자이다(Pew Hispanic Center). 라틴계가 흑인을 제치고 미국내 최대 소수인종인 된 것은 이미 수년전의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인의 미국 이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십 년 내 백인을 제치고 미국의 주인종이 될 것이라는 얘

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인종적으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숫적 우세를 기반으로 라틴계 인구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도 계속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오바마 다음에는 라틴계"라는 다소 성급한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민의 증가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국제이민의 또 다른 특징은 스페인, 캐나다, 일본과 같은 미국이외의 국가로 이민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스페인은 미국 다음으로 중남미 이민자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스페인은 중남미로 많은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였다. 식민시대 라틴아메리카에 이주한 스페인인은 식민지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었고 독립 이후에도 "근대화는 곧 유럽화"라는 서구중심적 통치 철학에 따라 스페인인의 중남미 이주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반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의 이민이 더 많다.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중남미 이민자는 특히 2000년대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현재도 중남미계이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스페인에서 중남미계인구는 미국에서 히스패닉이 흑인을 넘어선 것처럼 모로코이민을 넘어 가장 큰 이민자 그룹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에서 이른바 '라틴아메리카화'가 어떤 양태로 전개되는지를 고찰하고 그것이 스페인 사회에서 어떤 관계와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될 것이다.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총체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스페인의 국제이민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역사

적 구조와 함께 현재적 양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스페인 국제이민의 역사성을 연구하고 3장에서는 국제이민의 구조와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현황과 사회인구학적 성격을 분석할 것이며 5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에 대한 스페인의 다양한 반응이 갖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스페인의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국내외의 저서, 논문, 일차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국내 연구로는 스페인의 모로코계 이민을 다룬 논문 등 몇 편의 연구가 있을 뿐 다른 연구는 거의 없다. 반면 스페인이나 중남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는 많은 편이다. 연구의 접근 시각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도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라틴아메리카 이민자가 급증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상황이어서 연구의 수준이 완전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아직 레메사(Remesa, 고국 송금) 등 중남미계 이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도 미진하며, 또 중남미 이민을 출신국별로 분석한 자료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핵심 문헌자료로 살펴볼 것이며 아울러 노동이민부(Ministerio de Trabajo e Inmigración)와 국립통계원(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의 통계 정보 등 스페인 정부의 발간물을 일차자료로 분석할 것이다.

## Ⅱ. 스페인 국제이민의 역사성

오늘날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페인 국제이민이 갖는 역사적 맥락을 개괄해볼 필요가 있다.

아는 바와 같이 스페인은 역사, 인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진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인의 기원은 기원전 3,000년경 아프

리카에서 온 이베리아족이지만 페니키아인, 그리스인에 의하여 식민이 이루어졌고, 북부에서 켈트족도 들어왔다. 그 후 로마인, 게르만 민족이 들어왔으며, 이슬람 세력인 아랍인이 800년간 스페인을 통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색채를 나타낸다. 스페인 사람은 백인 치고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키가 작고 머리칼은 검다. 이는 지역적으로 더 두드러진다. 북부의 갈리시아 지역은 인종적으로 켈트족과 비슷하며 동부해안에서는 유럽의 북방계의 인종적 특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언어 역시 카스티야어, 카탈란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인종-문화의 혼종성은 해외개척과 국제이민의 역동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은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일 때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고, 많은 이민을 외국에 내보내는 나라였다. 1900년대 전반까지는 아메리카로 떠나는 사람이 많았고, 2차 대전 이후로는 프랑스나 독일 등 인근 서유럽 국가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1850-1950년 사이 스페인인의 중남미이주는 매우 활발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식민화, 산업화, 도시화를 꾀하기 위해 스페인이민을 환영하였다. 이 기간 이민자 숫자는 350만에 이르렀고 이들과 이들 후손은 현재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브라질, 멕시코 순으로 많이 살고 있다(Martínez 2008, 151-152).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상황이 변하였다. 특히 70년대부터 해외로부터 유입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나 동시에 스페인은 유럽에서 출생률과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고 2000년 이후 출생률은 인구 대체 수준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이민자의 유입 덕분에 인구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스페인에서 이민자 인구는 놀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표 1〉에서

처럼 이 기간 스페인 전체인구는 4천만에서 4천6백만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국인인구는 거의 8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8년 1.6%에서 2008년 11.4%로 급증하였다. 이제 스페인은 유럽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500년의 해외 식민 대국 스페인은 단 50년 만에 지구상에서 외국인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표 1〉 스페인 외국인 인구 변화 1998-2008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외국인 (천명) | 637 | 749 | 924 | 1,370 | 1,978 | 2,664 | 3,034 | 3,730 | 4,144 | 4,519 | 5,269 |
| 총인구 (천명) | 39,722 | 39,927 | 40,264 | 40,721 | 41,314 | 42,004 | 42,692 | 43,398 | 44,068 | 44,874 | 46,158 |
| 대비율 (%) | 1.60 | 1.87 | 2.29 | 3.36 | 4.79 | 6.34 | 7.10 | 8.59 | 9.40 | 10.07 | 11.41 |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8), Estuructura de Población 1991-2007, Indicadores Sociales 2008.

## Ⅲ. 스페인 국제이민의 구조

### 1. 스페인의 외국인·이민법 체제

스페인에서 외국인의 입국과 거주에 관한 규정의 근간이 되는 것은 '외국인의 자유와 권리와 그들의 사회 통합에 관한 법'(Ley Orgánica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약칭 '외국인법'(ley de extanjería)이다. 이 법은 1985년 처음 제정되었는데 말 그대로 외국인이 스페인 사회에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는지를 정해 놓고 있다.

외국인법과 함께 회원국간 통행과 거주에 관한 EU 규정도 스페인에 있는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법을 구성하고 있다. 1993년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기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트리히트(Masstricht) 조약에 따라 회원국간에 자유 통행과 거주가 정해졌고 유럽 27개국이 참여하는 쉰겐(Schengen) 협정으로 서명국간 이동시 여권검사가 폐지되었다.(Martínez Pizarro 2008, 34) 따라서 유럽연합국가의 국민은 비자 없이 스페인에 입국하고 거주(3개월이내)할 수 있으며 제 3 국의 외국인이라도 일단 스페인에 들어오면 다른 유럽국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의 외국인·이민법 체계는 국내외적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스페인은 국적의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중 한명이 스페인인이면 출생지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손자녀의 경우도 최소 1년의 합법 체류 조건이 만족되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채운 경우에도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 식민지였던 중남미 출신 이민자는 다른 국가 출신(10년)보다 체류조건(2년)이 더 짧으며 아울러 이들에게는 이중국적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의 국적 제도는 중남미 이민에 특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artínez Pizarro 2008, 35).

입국과 체류허가는 두 범주로 나뉘는데, EU 가입국 국적자와 그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적용되는 회원국규정(Régimen Comunitario)과 기타 국가 국민에게 해당되는 일반규정(Régimen General)이 있다. 전자는 체류허가와 함께 노동허가가 부여되나 후자는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Ministerio de Trabajo) 따라서 중남미 이민자는 체류허가를 받고도 노동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자

중에도 불법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에서 체류 허가는 단기, 장기, 영주로 구분되는데, 장기체류자(5년)와 영주권자는 참정권 등을 제외하고 교육, 의료, 취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2. 스페인 국제이민의 현황

현재 스페인에는 527 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이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 순이다. 유럽 출신의 다수는 EU 회원국이며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에서 오는 이민이 많다. 아메리카 이민자중에서는 남미 출신이 많은데 이중 에콰도르 이민자가 가장 많으며 아프리카 이민의 경우 사하라 이남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로코계이다. 아시아계 외국인도 있는데 대다수는 중국인이며 기타 필리핀, 중동, 파키스탄 출신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페인에서 EU 출신 외국인을 제외하면 남미출신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1] 스페인에 거주

〈표 2〉 외국인 인구 대륙별 분포

| 출신 지역 | 인구 (명) | 비율 (%) |
|---|---|---|
| 유럽 | 2,367,922 | 44.9 |
| E.U. | 2,161,756 | 41.0 |
| 기타 | 206,166 | 3.9 |
| 아프리카 | 822,797 | 15.6 |
| 아메리카 | 1,833,888 | 34.8 |

1)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 국가의 국민은 스페인에 입국하고 체류하는데 제한이 없다. 장기체류의 경우 체류비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노동허가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EU 시민권자는 스페인에서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민자 구분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 | | |
|---|---|---|
| 북미* | 47,289 | 0.9 |
| 중미 | 173,012 | 3.3 |
| 남미 | 1,613,587 | 30.6 |
| 아시아 | 241,279 | 4.6 |
| 오세아니아 | 2,876 | 0.05 |
| **계** | 5,268,762 | 100.0 |

* 멕시코 포함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9), Anuario Estadístico de España 2009, 41.

하는 외국인 3명중 1명은 중남미 출신인 셈이다.[2)]

스페인 거주 외국인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루마니아 출신이 가장 많다.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와 함께 2007년 EU에 가입했는데 이후 이 두 나라의 스페인 이민은 크게 증가하였다. 모로코에서의 노동이민은 70년대 들어서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민자 그룹중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에콰도르 이민이 많으며 같은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출신 이민도 많다. 영국이나 독일의 이민자나 은퇴자도 스페인에 많이 있다.

스페인 거주 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을 보면, 모로코인 주로 건설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며 중남미나 동유럽 출신은 서비스 직종 및 건설업에 많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중남미 출신은 까딸루냐와 마드리드에 많으나 발렌시아와 안달루시아에는 유럽 등 기타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더 많다(임주인 2009, 110 ; Anuario Estadístico de España 2009, 68).

2) 〈표 2〉를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중남미(또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통계 수치는 멕시코 출신이 포함된 것임을 밝힌다.

〈표 3〉 외국인 인구 출신국별 상위 10개국

| 순위 | 국가 | 인구(명) | 비율(%) |
|---|---|---|---|
| 1 | 루마니아 | 731,806 | 13.9 |
| 2 | 모로코 | 652,695 | 12.4 |
| 3 | 에콰도르 | 427,718 | 8.1 |
| 4 | 영국 | 352,957 | 6.7 |
| 5 | 콜롬비아 | 284,581 | 5.4 |
| 6 | 볼리비아 | 242,496 | 4.6 |
| 7 | 독일 | 181,174 | 3.4 |
| 8 | 이탈리아 | 157,789 | 3.0 |
| 9 | 불가리아 | 153,973 | 2.9 |
| 10 | 아르헨티나 | 147,382 | 2.8 |
| 기타 | | 1,936,191 | 36.7 |
| 계 | | 5,268,762 | 100 |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9), España en cifras 2009, p.9.

이민자를 불러들이는 스페인의 조건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들 수 있다. 스페인은 1986년 EU에 가입하고 90년대 들어서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건설업과 농업 등의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Marrero 2004). 또 스페인은 지정학적 위치상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마그렙(북아프리카출신)이 많으며 또한 문화적인 이유로 중남미 이민자들이 첫 발을 내딛는 관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스페인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일조 조건으로 서유럽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3] 이 모든 것들이 스페인의 입이민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BBC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해외 거주 연금생활자가 많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랜드 순인데 다른 나라들이 영어 사용국임을 감안하면 영국인의 스페인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Brits Abroad)

# Ⅳ.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특성

## 1. 라틴아메리카 이민의 배경과 동인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이민자 역사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많은 수는 아니였지만 쿠바인들이 중남미 이민의 첫 번째 물결을 이루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쿠바 혁명을 피해 조국을 떠나온 정치적 이민자였다. 1970년대 들어 중남미 이민의 출신국은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칠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때부터 스페인은 들어오는 외국인이 나가는 내국인보다 많은 이민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프랑코 독재가 끝나고 재귀국하는 스페인인이 늘어났고 따라서 1985년에는 최초로 외국인법이 제정되었다. 또 쿠테타 등 정세 불안으로 남미남부 지역 국가에서 오는 이민도 늘어났다. 따라서 당시 스페인에 온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과 학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Martínez Pizarro 2008, 25 ; Oso 2008, 146).

〈표 4〉 중남미 출신 외국인 변화 추이(단위: 천명)

| 구 분 | 1990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중남미출신 | 63 | 92 | 118 | 139 | 189 | 424 | 730 | 1,048 | 1,238 | 1,446 | 1,501 | 1,570 |
| 총외국인 | 407 | 500 | 637 | 749 | 924 | 1,371 | 1,978 | 2,664 | 3,034 | 3,731 | 4,144 | 4,520 |
| 중남미/총외국인(%) | 15.4 | 18.4 | 18.5 | 18.5 | 20.4 | 32.1 | 36.9 | 39.3 | 40.8 | 38.7 | 36.2 | 34.7 |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8), Estructura de Población 1991-2007, Indicadores Sociales 2008;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1997), Anuario Estadístico de España 1997. 101-101.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이민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생계와 노동을 위한 이민으로 바뀌었다. 이민자 규모는 1990년 6만명에서 1995년 9만, 2000년 19만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불법체류자 사면조치가 있었던 2000년과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총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0%를 넘었다.

라틴아메리카 이민자중에는 에콰도르 출신이 가장 많다. 에콰도르 이민자는 스페인에서 루마니아, 모로코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하였는데 1995년 2,000명에서 2001년 84,000, 2003년 375,000으로 늘었고 현재는 43만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이민자를 포함하는 그 숫자는 5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Marrero 2004).

중남미 이민이 대거로 스페인에 유입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스페인의 유인 동인(pull factors)으로는 이민과 노동의 깊은 연관성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다른 나라에서 온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통계에 의하면, 스페인이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1,200만명의 이민자가 더 필요하다(Marrero 2004). 그래서 출근한 스페인 여성을 대신하여 이민자 여성이 집안일을 돌보고 스페인 남자들이 하지 않으려는 험한 일을 이민자 남성이 대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EU의 이민규제 압력이 커져 스페인도 라틴아메리카 이민자에 대해 입국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스페인 정부의 이민 정책도 중남미 이민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페인은 2000년에는 'Regularización', 2001년에는 'Documentación por

Arraigo'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일종의 불법이민자 사면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면조치들은 특히 중남미출신 불법체류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4] 다수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또 두 번의 사면법이외에도 2001년 체결된 스페인-에콰도르 협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협정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에콰도르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료를 지불하여 귀국시키고, 이들이 다시 스페인으로 재입국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합법화시켜 주었다. 이로서 약 3,000명의 에콰도르 이민자가 새롭게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취득하였다(Martínez Buján 2003, 21).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지정학적 조건도 중남미 이민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남미의 동인(push factor)으로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의 경제위기를 일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 1990년대말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1,200만 인구 중 약 150 만이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이중 약 100만이 미국으로 갔고 나머지는 스페인 등 유럽으로 향하였다. 90년대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에콰도르 경제는 1998년 자국화폐의 달러화 조치를 포함하여 일대 위기에 빠졌다. 〈표 5〉처럼 에콰도르 경제는 1998-2000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였고 개인소득은 급감하였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콜롬비아의 경우도 유사하다. 자연(지진과 화산폭발 등 빈번한 자연재해), 사회(마약 카르텔에 의한 사회혼란), 정치(정부와 반군간의 끝나지 않는 내전)보다 경제(만성적인 경제위

4) 2000년 사면조치에서는 25만명이 신청하여 56%인 14만 명이 체류자격을 획득하였는데 이를 국가별로 보면, 모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중국 순으로 많았으나 획득/신청의 승인율을 보면, 아르헨티나(80%), 콜롬비아(77%), 에콰도르(77%), 브라질(76%)순으로 높았으나 모로코(51%)와 중국(59%)은 낮았다. 이는 사면 조건에서 중남미 출신이 유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의 경우에도, 스페인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중요 조건중의 하나가 내국인(또는 합법체류외국인)과의 인척관계를 증빙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중남미 출신에게 유리한 것이었다(Martínez Buján 2003, 16-17).

기)는 콜롬비아 국민을 해외로 떠나게 만든 일차적 원인이었다.[5] 이처럼 1990년대부터 2000년대초까지 에콰도르를 포함한 중남미출신 이민의 급증은 자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표 5〉 에콰도르 총생산(단위: 백 만 달러)

| 연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총생산 | 19,157 | 19,760 | 19,710 | 13,769 | 13,649 | 17,982 | 21,039 |

출처: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Radiofónica, et, al.(2003/1), Causas del reciente proceso emigratorio ecuatoriano(Cartilla sobre Migración, No. 3), 2.

에콰도르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키토 주재 미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비자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전부터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방문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는 미국을 방문한 에콰도르인들이 미국에 불법체류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자,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에콰도르→중미→멕시코의 루트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에콰도르 사람이 늘어났다. 이에 비해 유럽 길은 안전한 편이었다. 입국비자도 필요하지 않았고 경비도 그리 비싸지 않았다. 공항에서 여행자임을 입증할 정도의 현금과 비행기 티켓만 보여주면 스페인으로 입국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페인으로 오는 키토발 항공기는 항상 만원이었다. 교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먼저 에콰도르를 떠났고 이어 가난한 노동자들도 뒤를 따라 스페인행 비행기에 올랐다(Marrero 2004).

이처럼 미국정부의 이민정책은 라틴아메리카인의 국제 이민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내에서 반이민주의가 점증하고 9.11테러이후 외국인의 입국

5) 2004년 스페인에 거주하는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58%가 경제적 이유로 이민하였다고 답했다(Delgado 2007, 102).

과 체류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중남미인의 미국 이민은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많은 중남미인은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의 이민을 결심하였고 스페인은 그중 1순위 국가였다.

## 2. 사회인구학적 조건과 성격

중남미 이민은 전통적으로 매우 '여성화'된 이민이다. 최근 남자 이민자가 많아지곤 있지만[6] 아직도 여성이 더 많다.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중남미이민자중 남성은 82만이고 여성은 96만명이다. 스페인의 총외국인의 성비(남자 280만, 여자 246만)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Anuario Estadístico de España 2009, 41).

중남미 이민에서 여성이 많은 것은 스페인의 가사노동 수요[7]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페인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가정을 돌 볼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 스페인 젊은이들의 직업기대치가 상승하여 '시골처녀'[8]를 구하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 부족한 가사노동력을 채우는 것은 외국인여성의 몫이 되었고 이는 라틴아메리카 여성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가사노동은 라틴아메리카 이민자에게 매우 중요한 고용 기회이다. 우선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

6) 2000년 이후 남성 이민이 증가한 것도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농장의 힘든 일을 맡을 남성 노동자가 필요했고 또 건설업이 살아나면서 남성 일자리가 많아졌다. 여기에 먼저 온 여성이 본국에 있던 남편을 초청하는 가족 재결합도 남성 이민 증가의 이유 중 하나였다(Oso 2008, 148-149). "여자와 자녀들 다음에 남자가 온다(Viene el hombre tras la mujer y los hijos)"라는 말처럼 중남미이민자의 이민 순서는 어머니-자식-아버지이다.

7) 여기에는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뿐만 아니라 노약자 돌보미도 포함된다. 중남미 여성이민자는 언어와 종교가 같기 때문에 노약자를 돌보는 일에 유리한 면이 많다.

8) 말 그대로 시골처녀(chica del pueblo)는 지방출신으로 도시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스페인 여성을 의미한다.

통해 이민국 사회의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 가사노동자는 불법이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도 낮다.

중남미 여성의 다수는 학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대신 돈을 모아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수한다. 파레나스(Rhacel Parrenas)는 이러한 사회적 신분 하락과 경제력의 상승을 '모순적 사회 유동성(contradictory class mobil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건이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일이 잦은데 이 경우 이민자 '후배'가 이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된다(Oso 2008, 150-151, 157) 이런 면에서 볼 때 스페인의 가사노동은 라틴아메리카 여성 이민자에게는 더 나은 노동기회를 얻기 위한 일종의 '도약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민자는 처음에는 입주 가사노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출퇴근 노동자가 되었다가 이후에는 호텔이나 상점과 같은 서비스 직종으로 이동한다.

직종별 분포를 보면 중남미 출신 이민자는 서비스업과 건축업에 많이 종사하는 반면 내국인은 전문기술직과 제조운송업에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용한 통계가 없어 중남미 전체 이민자의 학력과 직업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에콰도르 이민자의 경우, 전체의 67%가 중등교육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국에서 39%가 기술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였다(Martínez Buján 2003, 37). 따라서 중남미 이민자를 사회인구학적으로 분석할 때 '모순적 사회 유동성' 개념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6〉 스페인 내국인 및 이민자 직업구성

| 구 분 | 전문·기술직 | 상업 | 개인서비스 | 농·목·수산업 | 제조·운송업 | 건축업 |
|---|---|---|---|---|---|---|
| 내 국 인 | 19.8 | 5.0 | 35.7 | 11.7 | 19.4 | 8.1 |
| 중남미이민자 | 12.7 | 6.4 | 53.9 | 10.0 | 4.8 | 11.3 |

출처: Martínez Buján(2003), La reciente inmigración latinoamericana a España, Centro Latinoamericano y Caribeño de Demografía(CELADE) - División de Población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39.

## Ⅴ. '라틴아메리카화'와 반이민주의

유럽의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이민은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민에 개방적인 덴마크나 네덜란드같은 나라에서도 반이민주의가 점차 더 힘을 얻고 있다. 이민자 후손인 프랑스의 사르코지까지도 당선 직후 더 강력한 국경 통제의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스페인은 비교적 외국인과 이민자에 우호적인 편이다. 그간 이민자는 스페인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큰 문제없이 흡수되었다. 스페인 국민은 이민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외국인 노동력은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민자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서 환영받아왔던 것이다(Martínez Pizarro 2008, 26).

그러나 최근 스페인 내에서도 반이민적인 여건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전보다 이민을 달갑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민관련법도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반이민주의자들의 단골 메뉴인 이민과 범죄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나

타나고 있다(Rosi 2004). 또 최근 조사 연구에 따르면(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스페인 국민들은 "현재 스페인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Cuál es, a su juicio, el principal problema que existe actualmente en España?)"는 질문에 파업→경제문제→테러리즘→이민자문제→정치-정당문제→주택문제 순으로 복수 응답하였는데 이는 스페인 국민이 이민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로코 이민자의 경우를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2000년 모로코인이 연루된 범죄로 인해 야기되었던 모로코 이민자에 대한 반대와 테러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9]. 모로코이민자에 대한 경계와 반감은 반이슬람의 성격도 갖는다. 이슬람은 타 종교보다 훨씬 더 초국가적 조직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다. 스페인 국민은 이러한 결집성이 모로코 이민자의 스페인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모로코 이민자는 자신의 문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법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임주인 2009, 113, 119). 〈표 7〉에서처럼 아프리카(모로코계가 대부분인)출신의 귀화율이 다른 나라 이민자에 비해 저조하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발 테러 이후 이슬람극단주의에 대한 스페인 사회의 우려는 더 커졌다.

---

9) 2000년 1월 22일 안달루시아의 엘 에히도(El Ejido)에서 모로코인에 의해 두 명의 농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14일 후 26세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번 범인 역시 모로코 이민자였다. 이 사건으로 아랍인을 '사냥'하는 제노포비아가 폭발하여 엘 에히도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아프리카, 특히 모로코 이민자에 대한 테러가 벌어졌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사건들이 다수 일어났다.(La tensión hierve en los invernaderos) 또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모로코 이민자들에게 이슬람 기도소를 제공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크게 확산되기도 했다.

〈표 7〉 스페인 국적 취득자 대륙별 현황

| 구분 | 유럽 | 아프리카 | 아메리카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기타 | 계 |
|---|---|---|---|---|---|---|---|
| 1998 | 1,329 | **2,150** | **8,249** | 1,400 | 5 | 44 | 13,177 |
| 1999 | 1,410 | **2,880** | **10,368** | 1,671 | 3 | 52 | 16,384 |
| 2000 | 1,000 | **2,578** | **7,146** | 1,234 | 1 | 40 | 11,999 |
| 2001 | 1,347 | **3,826** | **9,846** | 1,677 | 3 | 44 | 16,743 |
| 2002 | 1,533 | **4,325** | **13,883** | 2,014 | 5 | 50 | 21,810 |
| 2003 | 1,574 | **8,517** | **14,418** | 1,992 | 5 | 50 | 26,556 |
| 2004 | 1,858 | **9,991** | **24,386** | 2,061 | 7 | 32 | 38,335 |
| 2005 | 1,607 | **7,346** | **31,830** | 2,010 | 9 | 27 | 42,829 |
| 2006 | 1,659 | **7,618** | **50,946** | 2,078 | 15 | 23 | 62,339 |
| 2007 | 1,796 | **10,312** | **57,466** | 2,202 | 9 | 25 | 71,810 |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8), Estructura de Población 1991-2007, Indicadores Sociales 2008.

점증하는 반이민주의에서 중남미 출신도 예외는 아니다. 때때로 내국인과 중남미 이민자간에 충돌과 대립이 격화되기도 한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이민자에 대한 우려, 경계, 반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는 아직 아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주변 국가의 국민들과 대조적으로 이민은 국가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따라서 외국인 이민자

10) 대표적인 사건은 알코르콘(Alcorcón) 사태였다. 2007년 1월 스페인 젊은이들과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간의 충돌이 마드리드 인근 알코르콘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라틴계 갱이 폭력, 살인, 강간을 일삼고 있으며 이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며 시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Latin Kings 와 같은 이민자 갱이 범죄증가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여 9명이 체포되었다. Latin Kings 나 Ñetas 와 같은 범죄조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이민자, 특히 에콰도르 출신 청소년을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Spanish youth clash with immigrant gangs).

에게 더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11] 스페인에서 이민자는 건설업을 활성화하고, 직장에 간 여성을 대신해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고, 농장을 살리고, 호텔과 식당에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이민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과 세금이 그들이 소비하는 것 보다 20%나 많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경제고문인 바예스(Javier Vallés)는 스페인의 경제성장은 이민자의 '노고'로 가능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Spain: Immigrants Welcome).

특히 모로코 이민과 비교할 때 중남미 이민자는 스페인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데 더 유리하고 우호적인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사회의 적응이나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중남미 이민자는 같은 언어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민 집단보다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다. 또 입국이나 취업 등의 면에서 다른 나라 출신보다 유리하며 따라서 국적취득율도 높다.[12] 또 외형적으로도 중남미 이민자는 모로코 이민에 비해 덜 두드러져 경계나 차별을 덜 받게 된다.[13] 따라서 이들이 스페인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과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11) 한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 국민은 단지 19%만이 이민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스페인 국민은 42%가 그렇다고 답했다(Spain: Immigrants Welcome).

12) 〈표 7〉과 같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중 다수는 아메리카출신인데 이들의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임을 감안하면 스페인에 거주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귀화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3)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인종적으로 내국인과 다르면 다를수록 이민국 사회에서 더 '주목'을 받게 되고 따라서 반이민주의의 대상이 되기 쉽다. 페루인의 칠레이민을 연구한 스테포니에 의하면,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이민숫자가 페루이민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페루이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인과 칠레인은 인종적으로 유사하나, 페루인은 외형적으로 원주민적 요소를 더 많아 더 눈에 띠고, 그래서 설제보다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칠레에서 페루이민은 더 많은 '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Stefoni 2004, 322).

스페인에서 중남미계 이민자의 '표'는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라틴 파워는 이미 두드러진다.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는 이미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서 스페인 기업들의 주 고객이 되었으며 스페인 유수의 은행들은 이들의 송금을 붙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 'Mi Ecuador'와 같이 중남미 이민자를 주 독자로 하던 매체는 물론이고 일반 방송과 신문도 중남미와 중남미 이민자와 관련된 소식을 별도로 다루는 지면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남미 이민자 공동체는 스페인 사회에 적응·동화하면서 동시에 나름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 Ⅵ. 맺는 말

스페인에서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는 숫적으로 이미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은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과 소비의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는 정착과 통합의 면에서 스페인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스페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화는 논의 가능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미국에서 히스패닉이 흑인을 넘어선 것처럼 스페인에서 중남미이민은 사실상의 최대 이민 그룹이었던 모로코계를 넘어 최대 외국인 집단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의 국제이민의 라틴아메리카화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화는 이민과 인구의 라틴아메리카화를 넘어 미국 문화와 정치의 다원성까지를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화는

아직은 미국의 그것보다는 협의적인 라틴아메리카화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이민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특성은 중남미 이민의 변화를 노동시장 관계의 시각으로만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증가는 스페인에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와 일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취업이나 국적 취득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남미인에게 유리한 스페인의 문화나 사회 조건도 노동시장 구조 못지않게 중남미에서 스페인으로의 이민을 추동시키는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 이민을 이해할 때 스페인 국제이민의 현재적 조건과 함께 역사-문화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중남미출신 이민, 더 나아가 중남미와 스페인간의 이민 관계는 다른 국제이민과는 대비되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왜냐면, 스페인-중남미의 국제이민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간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문명과 역사까지도 주고받는 'hispanidad'(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간의 동질성과 유대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페인에게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는 바다 너머 '타자'가 아니라 돌아온 '자아'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중남미에서 라틴아메리카로의 이동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스페인에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 이민자는 중남미-스페인간의 상호 관계를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임주인(2009), "모로코 이민자 정착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 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1호, pp.104, 105, 110, 113, 119.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ducación Radiofónica, et, al.(2003), Causas del reciente proceso emigratorio ecuatoriano(Cartilla sobre Migración, No. 3), p.2.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2010/1), Barómetro de Enero(Estudios no. 2.828).

Delgado, Lola & Daniel Lozano(2007), Latinos en España, La Esfera de los Libros, p.102.

Martínez Buján, Raquel(2003), La reciente inmigración latinoamericana a España, Centro Latinoamericano y Caribeño de Demografía(CELADE) - División de Población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pp.16-17, 21, 37, 39.

Martínez Pizarro, Jorge & Leandro Reboiras Finardi(2008), Impacto social y económico de la inserción de los migrantes en tres países seleccionados de Iberoamérica, Centro Latinoamericano y Caribeño de Demografía(CELADE) - División de Población de la CEPAL, Santiago de Chile, pp.25-26, 34-35.

Martínez, Jorge(ed.)(2008), América Latina y el Caribe: migración internacional, derechos humanos y desarrollo, CEPAL, pp.151-152.

Oso, Laura & Raquel Martínez(2008), "Domésticas y cuidadoras: mujeres inmigrantes latinoamericancas y mercado de trabajo en España", L'Ordinaire Latino-américaian(208-209), Université de Toulouse-Le Mirail, pp.146, 148-150, 157.

Stefoni, Carolina(2004), "Inmigración y Ciudadanía: La Formación de Comunidades Peruanas en Santiago y la Emergencia de Nuevos Ciudadanos", *Política*(no. 43), Universidad de Chile. p.322.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1997), Anuario Estadístico de España 1997, pp.100-101.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9), Anuario Estadístico de España 2009, pp.41, 68.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8), Estructura de Población 1991-2007, Indicadores Sociales 2008.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09), España en cifras 2009, p.9.

Ministerio de Trabajo e Inmigración, Régimen de los ciudadanos comunitarios en España (http://extranjeros.mtas.es/es/InformacionInteres/FolletosInformativos/archivos/VERSION_ESPANOL.pdf)

Ministerio de Trabajo e Inmigración, Régimen general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http://extranjeros.mtas.es/es/InformacionInteres/FolletosInformativos/archivos/regimegeneralmarcadores.pdf)

"Brits Abroad: Country-by-country", BBC News, 2006/12/11 (http://news.bbc.co.uk/2/ hi/uk_news/6161705.stm)

"La tensión hierve en los invernaderos", El Público, 2008/12/16 (http://www.publico.es/espana/183586/tension/hierve/invernaderos)

"Spain: Immigrants Welcome How Spain's open-border policy is driving an economic and social revival", 2007/5/21 (http://www.businessweek.com/magazine/content/07_21/b4035066.htm)

"Spanish youth clash with immigrant gang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1/22 (http://www.nytimes.com/2007/01/22/world/europe/22iht-spain.

4295237.html?_r=1)

Marrero, Pilar(2004), "Immigration Shift: Many Latin Americans Choosing Spain Over U.S.", 2004/12/9 (http://www.imdiversity.com/villages/hispanic/world_international/pns_immigration_ shift_1204.asp)

Pew Hispanic Center(2007), Statistical Portrait of Hispanics in the United States, (http://pewhispanic.org/files/factsheets/hispanics2007/2007_Hispanic%20Profile_Final.pdf)

Rosi, Marcelo(2004), "España, ¿tierra prometida?", BBC Mundo, 2004/03/08 (http://news.bbc.co.uk/go/pr/fr/-/hi/spanish/international/newsid_3538000/3538085.stm)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